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8

2001

가정예배 · 잠언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1

가정예배 · 잠언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8월의 바닷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아시나요!
주께서 거니시던 곳
무지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어리석은 그들을 용서하시던 바닷가!
그 곳엔
비단결보다 곱고 부드러운 주의 발자국,
맑은 하늘 주워담은 푸름보다 더 깊은 주의 마음,
진실로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에는
여전히 일렁이는 파도,
그 파도에 실려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시리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이
하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들을
모두 주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바닷가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8월
위임목사 김 성 관

마가복음 서론

마가복음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역사적 정황과 초대 교부들의 증언 등을 고려해 볼 때, 요한이라고도 불리운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 사건들을 모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모두 베드로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기록한 복음서는 처음부터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서가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암시하는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주후 50년경을 전후해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마가복음은 그보다 더 일찍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작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게 가르치셨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한된 분량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과 같은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나 설교가 복음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에서 볼 때 별도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활동의 일부로 소개됩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활동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 때문에 그의 생애의 정점인 고난과 십자가가 마가복음에서는 유난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있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야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이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메시야 예수가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적 행위를 일찍부터 소개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도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1:1-8	세례 요한
1:9-9:50	예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10장	예루살렘으로
11, 12장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14-16장	예수의 수난 · 죽음 · 부활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거듭 선언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언어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그 입술의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2절). 표현을 달리하면,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므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십니다(3절).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11절). 주님께서 심각한 도전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마12:36) 셋째,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며(2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엡5:18). 성령 충만의 열매로 언어생활의 변화를 지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와 찬송,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덕을 세우는 언어생활이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둘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균형있게 적용될 때, 온전하고 바람직한 신앙과 삶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움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빌2:13).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삶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33절).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집니다(잠19:21).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납니다(1절)” 결국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9절)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삶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며(3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며(20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표현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은 화평과 대조되는 다툼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1절). 허물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9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14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이다(19절)”

죄인된 인생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에덴에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갈등과 다툼,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함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적으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막힌 담을 허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5:18) 우리는 갈등과 다툼의 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며 달려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0절과 11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10)절.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달려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하고 깨어진 백성들이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을 보며 탄식하였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인고”(렘8:22).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찾지도 피하지도 않는가. 탄식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앓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행3:6).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요14:13).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삶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희를 꿔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희를 꿔으리로다”(시118:10,11).

여호와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여호와와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거룩한 주일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게 하며,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 성도는 지혜를 구하고 얻는 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8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23절). 이 지혜가 없을 때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날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골2: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23절). 둘째,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16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요15:10).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되시는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툼을 일으킵니다(3절). 특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악을 갚으려고 보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악을 갚겠다는 보복심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복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22절).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략을 길어내고(5절), 서로 의논함으로(18절)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어떤 길이 앞에 놓여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고(20절), 자신에게도 깨끗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살핍니다(9절).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11절).

예수님은 저주하고 악을 갚으려는 보복심으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마음보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악을 갚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저주의 말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와 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1절).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2절). 하나님은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형통한 악인의 삶을 미워하십니다(4절).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상실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집에서 다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9,19절). 다툼이 가져오는 고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큰집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연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여 가난뱅이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17,25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입니다(23절). 하나님은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부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다투지 않고 섬기는 부부로 살아갈 것이며, 연락을 좋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입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다투는 삶으로 서로 가슴 아파하고 상당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입과 혀를 잘 지켜서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초기부터 가르쳐야 합니다(6절). 자기 생각과 법칙으로 굳어진 사람에게 향한 길을 가르친다고 할 지라도 성과가 없습니다. 선한 눈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행위를 닮아 울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4-25절). 인간의 마음 안에는 미련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깊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입니다(15절). 하나님과 부모에게 징계하는 채찍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만 방자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채찍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물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칙과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역시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당신 안에 얽혀 있는 미련한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스스로 채찍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본받기를 좋아하는 당신의 죄성을 과신하지 말고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적절하게 징계하는 채찍을 들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말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가 선택한 행동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7절).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5절). 어쩌면 주목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그 결과의 허무함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의 형통함에 집착합니다(17절). 죄인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안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진리를 쉽사리 팔아버리려고 합니다(23절). 도저히 바꿀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을 현실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치밀하게 계산부터 하는 법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주보다 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쉽사리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라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 제목 / ① 허무한 것을 생각지 말고 구주를 생각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신은 혹시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몰라”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모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1절) 환난 날에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10절)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15절)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17절) 반역자와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21절) 악인더러 당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23-24절) 까닭 없이 이웃에게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28절) 혹시 당신이 나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29절) 좀 더 자자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33절)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철부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속이려고 할 때 부모님이 속아 넘어 갔습니까? 그저 눈을 감아 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언젠갓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 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마음을 저울질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돌이켜야 할 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날과 같은 절대 군주 밑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속에서 질서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는 부모가, 직장에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 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오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찌끼를 제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권면합니다(4-5절). 세 공업자가 그릇을 만드는데 찌끼가 있는 상태로 만든다면 어찌 온전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찌끼는 틈새가 되고 이내 물이 흘러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은 찌끼와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감독 감찰하는 것입니다. 찌끼 없는 그릇이 됩시다.

또 하나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6-7, 13절).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교만인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체하고 말 잔치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곧 들통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무더운 날 타작마당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열음냉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많으나 쓸만한 사람이 드물다고들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면 크리스천이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끼었을 찌끼를 제거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높은 자리보다는 일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 ①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중 하나는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분별함이 없이 무조건 일을 맡기거나 하고자 달려드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때에 비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눈이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여름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봄부터 10월까지의 건조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오히려 해가 되고 심지어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와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리는 것같이 해를 받는다고 했고, 10절을 보니 장인이 물건을 만들면서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함처럼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맡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맡은 영예는 적당한가?

지혜로운 자를 선별할 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3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근심히 살았다면 훨씬 실수가 적고 주의 영광을 들어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련하여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먼저 우리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현재의 조건이 그 계획을 충분히 성취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인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고, 자랑의 뿌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요 내일에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면책할 줄 알고 면책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나 오히려 참 사랑은 면책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고, 면책을 들을 줄 알 때 자신의 잘못을 고쳐가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도 싫고, 주린 자는 쓴 것도 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 교만한 자에게는 거처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 중 중요한 것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떠나질 않고 언제 다가올지 모를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의는 진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반면 악인은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숨게 만듭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의인을 알아 줄 지식이 없고 쉼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의인에게는 명철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찾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지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의인은 통하고 악인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악인의 유혹과 꾀박이 있을 지라도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선악을 분별하여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정적인 지도자와 긍정적인 지도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날 갑자기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픈데 자신의 배가 부름으로 저의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됨으로 빈궁한 자를 오히려 못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 즉 거만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만 드러내려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사모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고 무엇보다도 목시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 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들어 주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집니다(1-6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혜자라 할지라도 범죄 하게 됩니다(10-33절).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7-9절).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자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 바라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어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주십시오’(7절)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
기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가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멀
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8절) 그는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
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위선과 교만과 탐욕과 우매함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
니다(10-23절).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얼마
나 헛된 일입니까?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
러내기 위해 기도합니다(9절).

지혜자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공의와(1-9절) 현숙한 여인의 모습(10-31절)은 잠언의 대전제로 시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함' (1장 1-7절)에 대한 결론적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음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3-7절), 선을 행합니다(8-9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10절로 시작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여성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지녀야 할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선을 행하고, 맘껏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부지런합니다. 지혜롭게 투자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미리부터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며, 남편을 존경하며, 지혜롭게 충고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남편과 가족,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조용히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지?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지?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전 3:18)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 31:30)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인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박진감 있는 문체, 예수님의 교훈보다 행동을, 그리고 신학적인 설명보다 공생애 중에 일어난 사건들 자체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는 특징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언급되어 '능력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여 '종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구자 세례 요한에 의해 메시아로 증거됩니다.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독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며 종으로서의 사역을 준비합니다(1-13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14-20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힘이 있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집니다(21-22절). 밤낮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23-45절). 특히 율법 규례에 의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했던 문둥병자를 치유함으로써(40-45절) 소외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안겨 줍니다(사61:1-3참조). 이처럼 바쁜 사역 중에서도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35절)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장에는 네 개의 중요한 기사가 소개됩니다. ①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②세리 레위(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③금식 논쟁과 ④안식일 논쟁을 촉발하면서 종교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상(床)에 들려 온 사람으로 하여금 상(床)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1-12절).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한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소외 받은 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13-17절). 예수님은 그릇된 금식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으로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18-22절). 그리하여 안식일에는 온갖 굴레에 속박 당해야 하는 줄 아는 사람들과 마침내 정면 충돌 하십니다(23-28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십자가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고독과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핍박도 더욱 심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비난했고 서기관들은 주님을 모함하려 했으며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 병자를 돌보십니다. 안식일에 한 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1-6절).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 그 중에 열둘을 제자로 세우시고 복음전파의 일꾼으로 보내십니다(7-19절).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이라고 매도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함을 두고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고 선언하십니다(20-30절).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간의 긴박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친족관계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31-35절).

사단은 오늘도 복음을 훼방하고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버려도 하나만은 지킵니다. 버리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고 지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위해 일시적인 고통은 이겨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사역이 그 동안 여러 면에서 오해와 도전을 받아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장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신비스럽게 자라서 때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실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26-29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매우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나라로 완성됩니다(30-32절)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쉽게 이해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모른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무지를 비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잘 모르는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내로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힘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권요셉 ·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현대의 과학 만능주의는 불신앙에 빠져 귀신의 존재와 초자연적인 면을 부정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귀신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귀신과 초자연적 영역까지도 지배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5절). 요즈음 귀신과 친하게 하려는 악한 운동이 일어나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 사회에서 소외된 미천한 여인의 소원도 들어 주십니다(34절).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신다고 해서 한 개인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고 소중하게 돌보셨습니다. 야이로와 같이 드러나게 간구하는 믿음도 응답해 주시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41절).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갖고 있는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의 능력을 고백합시다.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부활시키심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쉬지 않게 하소서 ②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단기선교사(방글라데시)가 1년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때에는 항상 반대세력도 거세진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나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고향을 떠나서 여러 촌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6절). 복음은 모든 곳에서 두루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함께 사역할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전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전파는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경제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셨으며(8,9절) 11절을 통해서 강제적인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호응하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영집을 강요하거나, 복음이 아닌 달콤한 말로 전도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고향사람들은 그 능력을 맞볼 수 없었습니다. 혹 전도자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현재 변화되었는데도 그의 과거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전파는 영적전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 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에는 열심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참된 청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이어서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성경으로 대답하셨습니다(6절). 자신의 환경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거나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꾸미기에만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 음식 자체가 불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마음에 쌓이지 않고 모두 배설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이웃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악한 생각들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써 자신을 청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외식적인 생활을 버리고 청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 또 사천 명을 먹여 주신 기적을 보고 서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아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경을 고쳐서 만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은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형편을 살피주셨습니다(1-3절).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실 때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훈하시기도 합니다.(15절)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만, 때때로 자연이나 우리의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느끼게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구원받지 못했거나(고후3:14),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 아닙니까?(고전3:1) 기적만을 바라고 따라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기적과 매일 돌보아 주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무언가 좀 더 새로운 표적과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성경을 묵상할 때 신령한 눈을 열어주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 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게 한 후에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의도하는 말을 좀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고백을 하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변형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1-8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9-13절). 산에서 내려와서는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14-29절). 그 후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시면서(눅9:44),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30-32절).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33-50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② 추은희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언어를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번에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조금씩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당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각 사건과 관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1-1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2-16절). 영생을 묻는 부자청년 사건을 통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다고 말하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 하셨습니다(17-34절).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을 구하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35-45절). 소경거리 바디매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고쳐 주셨습니다(46-52절).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혹 교회에 나왔을 때만 믿는 사람 같고, 나가는 순간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 삶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 주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을 찾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으며, 다윗의 후손이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우를 받으며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9:9의 예언대로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꺾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습니다(1-11절).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아 버리셨습니다(15-19절). 이에 화가 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떨리기 위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27-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20-25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한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죄에 대한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메시아 예수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른 사람들로부터 올무에 빠지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불의한 농부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1-12절). 예수를 책잡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이제는 더욱 지능적으로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이사(로마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 하셨습니다(13-17절).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취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부활의 날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부활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다고 대답하셨습니다(18-27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28-34절).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해치려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즘 세상 말세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세상 멸망의 날이 곧 이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장래를 알지 못하면서 생각 없이 말하지만 성경에는 세상 종말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세상 끝날이 될 것입니다. 종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성 파괴에 대한 징조를 묻자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있을 것입니다(5-8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죽이고 핍박할 것입니다(9-13절).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입니다. 그 날은 환난 날이 될 것입니다(14-23절). 인자(예수님)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24-27절).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28-37절).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징조를 보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마라나타(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신에게 이 세상의 생명이 단 하루만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살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시간 주의 복음을 말길 그의 제자들과 함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그의 장사를 준비하셨습니다(1-9).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되새겨 주셨습니다(12-25).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26-42). 그 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43-52).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결과가 어찌되는지 그 뜰에서 살펴보려다가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53-72).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문을 받는데까지 따라갔다가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마지막날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이 훗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을 굳게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② 8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9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생명 아니면 재물

찬송 / 376장(내 평생 소원 이것뿐)

본문 / 눅 12:13-21

들어가면서(서론)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부유한 자들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1:53, 12:16, 16:1, 16:19, 18:23, 19:2, 21:1). 그것은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 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는 세상의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은 때로는 심각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에 대한 탁월한 교훈이 되기도 하며,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고 참된 부유함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3절 - 어떤 사람의 재물에 관계된 부탁

② 14절 -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③ 15절 -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④ 16절~19절 - 부자의 생각

⑤ 20절~21절 - 하나님의 생각

2. 다음 주일 설교('생명 아니면 재물')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③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눅 12:15, 골 3:5, 벡후 2:3,14)

④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시 14:1, 잠 14:16)

⑤ 예수님께서 재물 자체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적용하지 않고, 재물을 다루고 있는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다'는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신 24:19-22)

나오면서(결론)

1. 가장 부유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셨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2. 우리의 삶의 방향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까, 재물입니까?
- ② 소유한 생명과 재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 ③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쪽이 아니거나 중립적인 대답을 하셨다면, 다음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제목 :

본문 :

제 2 과

죄로 물든 민족

찬송 / 383장(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 왕상 21:1-14

들어가면서(서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던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했었고,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지혜는 스스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교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교적인 융성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돈의 종교, 즉 바알, 아세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신전들을 건축했고,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불러왔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위치로 인해 아합 왕을 신임했습니다. 그들은 아합 왕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부유한 이유가

아합 왕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권위와 부드러운 지도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1절~3절 - 포도원과 아합

②4절~10절 - 이세벨의 꾸민 음모

③11절~14절 - 나봇의 죽음

2. 다음 주일 설교(‘죄로 물든 민족’)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오늘의 본문에서 아합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려는 광경이 나옵니다(1절~3절). 그러나 나봇이 거절하는데(4절), 그러한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레 25:23)?

② 아합 왕이 나봇의 반응에 대해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식사를 거르자, 아내인 이세벨은 격려하면서 포도원을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4절~7절). 그리고 그녀는 즉시로 계락을 꾸미는데, 아합 왕은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③ 이세벨은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④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장로들과 귀인들은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계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녀의 말을 따랐을까요?(롬 3:18)

⑤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장로와 귀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면서(결론)

1.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타락

아합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굳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죄를 먹고 마시는 타락은 삶 속에서도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에 떨어졌으며, 사회의 기준과 법은 왕의 권력과 힘에 의해 결정되어질 뿐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① 아합왕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② 이세벨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③ 장로와 귀인들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2. 우리의 선택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실제로 새로운 삶을 여러 가지 면에 적용시켜서 생각해보십시오. 삶의 목적, 재정, 시간 등 실제적인 부분들에 적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또한 가족의 죄와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 3 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찬송 / 417장(큰 죄에 빠진 나를)

본문 / 시 139:13~16

들어가면서(서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혈통적인 개념에 매여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 때문이며, 부모님은 단순히 출생을 위한 통로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통로가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심은 육신에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새롭고 놀라운 영적인 탄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탄생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각도에서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6절 -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가?

② 7절~2절 - 우리는 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가?

③ 13절~16절 - 하나님은 왜 나의 주인이신가?

2. 다음 주일 설교(‘주께서 나를 지으심’)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다윗은 14절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경외스럽고 놀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②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인간이 새롭게 가까운 관계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엡 2:13).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롬 5:10). 그렇다면 ‘화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설교문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③ 하나님과 화목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사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의 후사란 무엇인가요?(벧전 1:4)

㉠ 하나님의 후사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요?(딤후 3:7)

㉡ 하나님의 후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롬 8:17)

④ 하나님과 화목되고, 후사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신의 성품이란 무엇인가요?(벧후 1:4, 례 11:45, 요 17:17)

㉣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히 3:14)

⑤ 하나님과 화목되고, 후사가 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 계시록 1:5,6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즉, 현재(재림 前)와 미래(재림 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계시록 5:10과 20:6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 받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재림 前)와 미래(재림 後)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서(결론)

1.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즉, 전인적(全人的)인 면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손수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를 영혼을 조성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는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높은 위치로 상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2.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셨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②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③ 모든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제목 :

본문 :

제 4 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찬송 / 204장(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본문 / 요일 3:19~22

들어가면서(서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성을 열망하며 근심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확실합니까?”라고 묻지만, 결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실해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내일 망할지 모를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했던 통치국가들의 발흥과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던 것이 내일이면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이란 없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9절 -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② 20절 -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③ 21절~22절 -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2. 다음 주일 설교(‘그리스도인의 확신’)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대하여 살펴보십시오.

㉠ 진리에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 모습은 어떠합니까?(롬 3:9~18, 23). 또한 현재 모습은 무엇입니까?(벧전 2:9).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고후 5:1, 히 12:28, 벧전 5:4, 살전 4:16~18)

㉡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요 10:14, 골 1:9, 요일 5:20).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마 16:16)

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어디 계시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출 3:14, 시 64:8, 마 6:9).

㉕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속했음을 알고 나면,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삶' 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㉖ 진리에 속한 자는 영적인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적인 땅에서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고 후 5:17)

㉗ 진리에 속한 자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의 삶이란 무엇일까요?(롬 12:2, 엡 4:22~24)

㉘ 진리에 속한 자는 분명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마 6:24)

㉙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 '아는 것' (to know) 뿐만 아니라, 진리를 '확신' (assurance)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배워서 깨달아 아는 것뿐 아니라,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㉚ 어떻게 해서 진리를 확신하는 것일까요?(마 16:17, 롬 8:16)

㉔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롬 10:17, 눅 24:49, 행 1:4, 2:38)

나오면서(결론)

1.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은 불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확실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 :

본문 :

제 5 과

주의 만찬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 / 고전 11:20-34

들어가면서(서론)

고린도 교회는 귀중한 성찬예식을 먹고 마시는 인간의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놓고 말았습니다. 성찬의 참뜻과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만찬'은 신성한 예배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이라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예식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로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에 맞이하는 성만찬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이 되도록 성찬의 중요한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20절~21절 - 주의 만찬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가?

② 22절 - 주의 만찬에 대한 경고의 이유가 무엇인가?

③ 23절~24절 -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④ 25절 - 새 언약이 무엇인가?

⑤ 26절-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2. 다음 주일 설교('주의 만찬')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는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서 떠나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타나 있듯이 각각 '자기의 만찬' 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만찬을 먹기 전에 서로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만찬은 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②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다른 제자들에 의해 만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타나듯이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③ '주의 만찬'에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24절과 25절에 나타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즉,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그를 기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의미란 무엇인지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라는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26절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속적'이고 '끝까지' 전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에게 전할지 나누어 보시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오면서(결론)

1.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

'주의 만찬'은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행해야 할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한 이들은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로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2. '주의 만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27절). 그러므로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① 28절에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②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6 과

고 난

찬 송 / 356장
읽을 말씀 / 마 5:10-13
외울 말씀 / 딤후 1:8

밝히는 삶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마 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 위에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종류의 밝히는 삶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찾아봅시다.

1) 마 5:13

2) 마 5:10-11

2. 두 종류의 밝히는 삶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예수님을 인하여 밝히는 삶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3. 예수님을 인하여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마 5:10-12)

약속의 성취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 봅시다.

- 마 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 마 2:23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 마 4: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 마 4: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
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 요 19: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 요 19: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하나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
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4.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7.

벤전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충만하게, 능력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은 결코 나의 각오와 결단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베드로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8.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 두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8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방준영(1-5일), 김병태(6-10일), 서광진(11-15일) 목사
박인기(16-20일), 정진호(21-25일), 정혜성(26-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